

레슬리 알렌 박사, 애가, 세션 11,

애가 4: 1-22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1회 애가 4장 1-22절입니다.

우리는 이 비디오에서 애가 4장에 이르렀고 우리가 물어봐야 할 기본적인 질문은 그것이 책 전체에 어떻게 들어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4장이 불필요하고 적어도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기도, 기도, 기도해야 한다는 주제가 있었고, 멘토는 그들에게 기도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애가 3장의 모든 내용은 이것이며, 그는 1장과 2장의 시온의 여성 역할 모델과 유사하게 남성 역할 모델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은 3장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것은 응답이고,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따라서 5장은 퍼즐의 다음 조각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4장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2장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전후 시대에 현대적 고통에 대한 움직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장과 2장은 포위 공격에 대한 기억에 깊이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전후 시대, 즉 적군이 점령한 시대에 현대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포위 공격 상황 전체를 배제한 참고 자료는 5장과 매우 일치합니다. 5장은 포위 공격에 대한 질문에 거의 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후 유다의 점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장은 자연스럽게 3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4장은 어떻습니까?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의 포위 상황으로 돌아가며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4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중은 5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멘토는 그들을 손질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애도 과정에는 고유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 원칙이며, 누군가가 얼마나 오래 애도하게 될 것인지, 또는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그 애도와 특징에 주로 어떤 측면이 포함될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5장에서 회중은 멘토가 바라는 슬픔의 전환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멘토는 그 지연을 존중합니다.

그는 회중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1장과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회중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내가 환자를 대하는 목회자로서 가졌던 가장 슬픈 인터뷰 중 하나는 정신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환자는 안 좋은 경험을 해온 아내이자 여성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지원 합니까? 글썄, 그녀는 내 시어머니가 나에게 그것을 극복하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어때요? 나는 물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내 편을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 편을 들 때도 있습니다. 아, 정말 슬프네요. 아, 이해하는 가족을 위해.

아, 이해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불쌍한 여성 주위에 모여 그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런 부담을 나눠줄 수 있는 주변의 공감이나 공감이 있는 분들을 위해. 애가서에 나오는 멘토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멘토는 슬픔을 연습하기 위해 4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회중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현재의 필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좀 더 긍정적인 단계로 나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겿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실망감을 생각합니다. 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과 함께 머물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매우 슬퍼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잃은 예수께서는 얼마나 실망하셨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저와 함께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멘토로부터 모범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는 회중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행복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1장과 2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1절부터 20절까지에서 다시 장례 애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준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우리는 그 기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두 번 발생합니다. 우리는 전에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명소리다. 에차! 에차!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는 슬픔의 소리를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절부터 20절까지의 두 구절에는 일련의 대조가 역전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시절을 보냈고 지금은 나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상. 이러한 반전은 장 전체에 걸쳐 단편 소설과 짧은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자, 이제 이 장례식 애도를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우선, 1절과 2절은 금이 어떻게 빛이 바랬는지, 순금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종류의 이야기로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거리의 머리 부분에는 신성한 돌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은유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2절에서 우리는 현실, 즉 비유 뒤에 숨겨진 실제 상황에 도달합니다.

순금과 같은 귀한 시온의 자녀들을 질그릇으로 여겼으니 이는 토기장이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라.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회중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온이 1장 중간에 나오는 기도 중 하나에서 말로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무가치함에 대해 말하면. 나는 무가치하다. 그렇습니다, 11절. 여호와여,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게 되었는가를 보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사람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 전체에 대해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에서 시온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온의 의인화로 돌아갑니다. 이전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자녀들은 사실상 회중입니다. 폐허가 된 성전 뜰에 모이는 자들은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전체적인 수사학적 틀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적어도 2절에서는 시온의

의인화로 시작하여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같은 메모에. 22절에서는 딸 시온, 딸 시온을 언급합니다.

이제, 자세한 참고 자료를 보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해당 장에 대해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장은 2장과 매우 유사하지만 시온과 멘토가 상황에 가져온 강한 감정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멘토가 보여주는 깊은 동정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사람들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잔인하게 되었느니라. 6절에서는 내 백성을 징계하신다.

10절에는 내 백성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2장, 그리고 실제로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11에서는 내 백성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3:48에서 선택되었으며, 내 백성의 멸망으로 인해 내 눈에서는 눈물이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깊은 공감, 내 사람들에게 대해 말할 때 가슴 아픈 공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에피소드에 멘토가 직접 개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내가 정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서 있고 이 위기에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은 일반적으로 1장, 2장, 3장과 같은 삼행시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 세 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보다 짧습니다. 딱 두 줄이에요. 따라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 맞춰 2줄짜리 연 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3장에서 보았던 세 줄짜리 연이 없습니다. 따라서 44줄이 있는데 44줄만 있습니다.

애가 전체를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단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각각 67행, 3장은 66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은 44줄로 내려갑니다. 5장은 22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약하고 시를 짧게 만드는 등 문학적 종결을 향한 점진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문학적 종결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심리학적 종결이 아니라 애가에서 결코 볼 수 없는 문학적 종결입니다. 각 시를 차례로 줄여서 속도를 늦추고 마무리하는 그의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20절까지를 가지고 있으며, 장례식 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전체 백성과 그들의 무가치함을 언급하는 2절에서 그 기본적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유를 선택합니다. 거기에 좋은 옛 시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가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금, 순금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고대 근동에서 자주 일어났던 것처럼 신성한 돌, 즉 보물창고로 성전에 보관된 보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단지 진흙 항아리일 뿐입니다. 마치 점토 항아리가 열두 번 죽어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 내에서 여러 그룹으로 좁혀져 공동체의 각 부분에 대해 차례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어미가 젖을 내지 못하므로 더 이상 어미의 품에서 먹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다닐 만한 단단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자칼도 젖을 주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느니라.

그러나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해졌습니다. 아기의 혀는 갈증을 느끼기 위해 입천장에 달라붙는다. 아이들은 먹을 것을 구걸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는 아이들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TV 광고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고통받는 아이들을 화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주실 건가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강력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고대 유다에서 젖을 먹이는 이 불쌍한 아이들은 아이의 생애 첫 3년 동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유지되는 데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간호하거나 먹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잔인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걸까요? 글썄요, 사실은 드릴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비유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자칼도 젖을 주고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하지만 이 여자들은 동물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 사람들아, 정말 잔인한 것 같구나.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타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속 작품입니다. 사실 우리는 욕기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욕기 39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타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타조가 날개를 크게 치는데 그 날개에는 깃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땅에 알을 남겨두고 땅에 따뜻하게 두는데, 음식이 알을 짓밟을 수도 있고 들짐승이 짓밟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새끼를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타조에 관한 민간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잔인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다른 작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진미를 먹던 자들은 거리에서 멸망하고, 보라색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은 잿더미에 달라붙는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야 할 것과 현재의 또 다른 대조가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은 부자에서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하향 이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은행 계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런 식으로 반전을 겪을 수 있다는 무서운 상황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재더미에 매달린다.

그들은 값비싼 옷인 보라색 옷을 입도록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인 6~8절에서는 오히려 7~8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중에 6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큰 존경과 명예로 대우받는 시민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민 지도자들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7,8장에는 그 방백들이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희었나이다.

그들의 몸은 산호보다 더 붉 었고 , 머리카락은 사파이어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얼굴은 그을음보다 더 검다. 거리에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피부는 뼈에 쪼그라들었습니다. 나무처럼 건조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굶주림의 육체적 영향이고,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사람들조차도 굶주림의 육체적 영향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그을음보다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 현상입니다. 굶으면 피부색이 변합니다. 어둡고 보라색을 띠는 색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민 지도자들, 즉 왕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8절 둘째 부분에서는 그들의 가족이 뼈에 붙어 오그라들었습니다. 나무처럼 말라버렸어요.

그것은 수년 동안 굶주리고 과로한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의 사진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곳에서 얻힌 포위와 기아가 원인이었다. 그리고 10절에서 우리는 다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9절을 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녀를 삶아 내 백성을 멸망시키는 데서 그들의 음식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마도 가장 끔찍한 것은 굶어 죽은 이 아이들의 시신이 땅에 묻히지 않고 음식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끔찍하긴 하지만, 시체가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고대 종교적 맥락에서는 더욱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 시체들은 그저 동물의 시체로 여겨 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최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 즉 독일군의 손에 러시아인들이 포위된 사건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과 18개월에 불과한 예루살렘 포위 공격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900일, 900일의 포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큰 문제는 도시 안에 갇힌 사람들의 기아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암시장, 인간 육체, 굶어 죽은 사람들의 암시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는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허입니다.

자비로운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을 삶아냈습니다. 내 백성을 멸망시킬 때에 그것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연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글썄, 예전에는 동정심을 갖고 자녀에게 모든 동정심을 보인 여성으로 여겨지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여전히 동정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는 음식 부족을 포함하여 어른들이 더 쉽게 견딜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체력이 없습니다. 청소년과 어른들은 좀 더 쉽게 견딜 수 있고, 적어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먼저 죽었고 나머지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연민은 나머지 가족의 생명을 연장하고 나머지 가족을 돌보는 아내의 생명과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긴장감, 이런 긴장감을 갖고 있는데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음식을 요리하는 것이 내 직업이다. 얼마나 멀리 가야 하나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연민 속에서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체를 음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내와 어머니가 대처해야 할 끔찍한 긴장감입니다. 11절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12절은 다른 종류의 걱정입니다.

우리는 포위 공격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신체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옵니다.

대적이냐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주민이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시온의 노래의 메아리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에 대한 일종의 역반향입니다.

시편 76편은 시편에 나오는 시온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고 지키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자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는 고관들의 혼을 끊으시고 땅의 왕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자니라

거기에는 외국 왕들이 야훼를 존경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대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탄과 존경심이 바로 여기 애가 4장 12절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나 땅의 왕들이나 이 같은 말을 믿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적이냐 적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시온은 난공불락이라는 것이 시온 신학의 기본 교리였기 때문입니다.
원수라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시온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책의 앞부분에서 보았고,
이는 뜨거운 신학적, 종교적 문제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오래된 기대는 이국적인 이전 사고방식에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고
그들은 이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중 자체가 생각했던 것이었고 이것은 손실에 대한 일반적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시온 신학의 비극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대가 필요하며, 3장에서 멘토는 그들을 새롭게 우울하게
만들고, 새롭게 생각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에 타당한 기대가 있으며
그것은 당신을 현재 상황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장부터 16장까지에는 사회의 또
다른 부분인 예루살렘 사회가 있는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선지자들의 죄와 그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린 그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들은 피에 젖어 눈이 먼 채 거리를 활보하며 그들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리, 부정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리, 저리,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고 이방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다.

13절은 시온 신학의 종말에 대한 책임을 시온 신학의 청지기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 샬롬 선지자들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시온 신학이 그들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확신으로 제사장들과 기꺼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제사장들과 샬롬 선지자들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비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들의 고통에 대해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렸다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강한 언어입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설명해야 할 강력한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제사장들과 샬롬 선지자들, 평화의 선지자들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않았고,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의와 그분의 더러운 누더기를 해치지 마십시오. 신이다.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인 것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 자신이 그녀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과 이 포위 공격에서 선한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피로 더럽혀진 채 무작정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특히 제사장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정상적인 상황과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순결과 정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피를 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주위에는 피가 흘렸고 그들은 옷에 묻은 피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도 부정합니다. 그들은 피로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그들의 옷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떠나가라, 떠나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부정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일생을 통틀어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이 사제들의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이제 그들은 타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직자들이 매우 눈에 띄니다. 그들은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의 정점에 있던 이 성직자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가치를 지닌 이 사람들은 이제 난민이 되어 버림받고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와 또 다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사적 기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16절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이 제사장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영광이 없고 장로들에게는 은총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요, 노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로들은 노인이고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그리고 여기 노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에게는 존경도 없고, 연로한 제사장들에게도 은혜를 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겠지만, 노인이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사회적 역전이다. 그런데 17절에서는 군사적 동맹이 없는 백성과 느꼈던 실망감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은 도움을 구하는 것을 헛되이 바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지 못하는 나라를 간절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의 싸움, 바벨론에 대한 반역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와 군사 조약을 맺었고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그런 말씀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 그 포위 공격은 중단되어야 했고 군대는 이집트 군대와 맞서기 위해 유다 남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인들이 승리했고 이집트인들은 도망쳤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짧은 시간 후에 포위 공격을 재개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동맹이 부족합니다. 이집트만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가 군사 동맹만 맺었다면 말이죠.

아, 그들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들은 부러진 갈대, 부러진 갈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유다가 찾던 시기에 앗수르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아니, 열왕기하 18장과 21절에서 앗수르 사신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연설하던 때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보라 네가 이제 애굽을 의지하니 저 부러진 갈대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 곧 애굽 왕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의 손을 찌르리라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그것이 또 한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군사 동맹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졌다. 18절과 19절로 돌아가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비극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은 땅에 박살나는 오래된 유서 깊은 기대입니다. 이것이 왕신학의 종말이다.

20절에 보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니 우리 생명의 기운이 그 구덩이에 빠졌도다 우리가 전에 이르기를 그가 그의 그늘 아래서 열국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그는 다윗 왕조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주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좌에는 항상 왕이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체포되면서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과 4절과 5절에 역사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관점에서 볼 때 주요 전투, 포위 작전은 성읍과 그 주변 성문의 북쪽과 북서쪽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과 다른 곳의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바벨론 군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덜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남동쪽 문이 있었는데, 왕과 왕실 일행과 일부 군대는 우리가 그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쪽으로 요르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암몬과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암몬 왕은 기꺼이 우리를 피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열왕기하 25장 4절과 5절입니다. 왕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왕의 동산 두 담 사이에 있는 문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 주위에는 갈대아인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많지 않은 남동쪽 문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라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요르단 계곡인 이유는 그들이 트랜스요르단으로 들어가 암몬의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군대가 왕을 뒤쫓아 요단 서편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니 그의 군대는 모두 흩어졌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사로잡아 립나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리블라는 시리아의 본거지였으며 느부갓네살이 있던 곳이었습니니다.

그리고 그는 세 별 장군과 함께 그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시드기야에게 형을 선고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족쇄로 묶어 눈먼 유배자로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후 상황에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던
회중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왕신학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비극적입니다. 시온 신학과 왕신학은 매우 평행하고 쌍둥이
항목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는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너무 비극적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자기 구덩이에 끌려갔느니라

매복이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그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안전해요. 그분은 열방 가운데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원하신다면 누가복음 24장과 21절에 나오는 평행 구절을 매우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던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사람은 그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이 가장 슬픈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지점에서 애가 4장과 20절에 대해 느끼는 느낌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장에서 우리는 슬픔과 상실의 중심에 있는 장례식 애도를 겪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손실. 그리고 여기서 멘토는 슬픔의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에서 더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회중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상실과 변화에 대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회 집단과 사회적 기대는 모두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빠뜨린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른 각도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통에 대한 강조, 고통에 대한 강조, 육체적 고통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울고 싶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상황과는 거리가 먼데도 어린아이의 혀가 목말라 입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음식을 구걸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고통은 매우 가슴 아픈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는 실제로 6절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논평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받는 징계가 소돔의 형벌보다 크도다. 소돔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졌느니라.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한 순간에 지진과 불로 멸망했다는 창세기의 옛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포위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이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대조가 있습니다. 소돔에서는 한 순간에 끝났지만 우리에게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통받고 고통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18년과 19년의 희생, 우리는 이전에 이 텍스트를 보지 않았지만 이것은 포위 공격 중에 탈출을 시도한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고, 다음에는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때. 그들은 우리가 거리를 걸을 수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종말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날이 정하였으니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음이라. 19년 우리의 추격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빨랐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우리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위 공격 중에 있습니다. 공성전의 일부는 성문과 성벽보다 높은 나무 바위가 달린 공성 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 궁수들은 이 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대문 내부에는 각 대문마다 광장과 광장, 시민광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을 거니는 게 당연했다. 그리고 궁수들은 성벽 밖에서 조준할 수 있었지만 성벽과 성문보다 높았기 때문에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있었고 그것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종말이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의 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에도 포위 공격이 계속되고 성문과 성벽이 굳건히 세워져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도망자입니다. 어쩌면 아직 포위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가 함락될 때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시드기야처럼 도시를 도망치지만 추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 외국 군인들은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쫓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릅니다. 그들은 산에서도 우리를 쫓아왔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통받는 사고, 한 가지 가슴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측면은 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슬픔은 삶의 색깔을 앗아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유형의 상실이며, 시의 첫 부분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1절에 보면 금이 어두워졌더라. 금은 변색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더러웠을 수도 있고, 아마도 예루살렘이 불탔을 때 연기로 인해 검게 변했다고 생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란 금은 그 노란 금을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다른 색인 자색 옷을 입은 자들이 나가느니라. 이제 암묵적으로 그들은 누더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다양한 색상이 우리 앞에 제시됩니다.

그들은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희었습니다. 그들의 몸, 분홍빛 피부는 산호보다 더 붉었습니다. 사파이어 같은 머리카락, 푸른 검은 머리카락.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채색된 참고 자료를 얻었지만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칙칙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메시지는 이 고통의 한 부분은 슬픔이 삶의 색깔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고 애도 연구에 꽤 많이 활용한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편과 더 관련이 있지만 애가의 시편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Anne Weems의 애도의 시편은 매우 강력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 작가가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그 힘을 얻습니다. 21번째 생일 다음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녀, 그녀의 외아들, 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Walter Brueggemann의 격려를 받아 장례식 애도 문구에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녀의 한탄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애도 시편 9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 중 일부만 읽어 보겠습니다.

오 맏소사, 세상은 색깔이 없어졌습니다. 음악이 꺼졌습니다. 침묵의 장막은 남아 있는 모든 곡물과 녹색을 덮습니다.

모든 것이 회색이고 죽음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시의 첫 부분에 있는 애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한 것입니다. 슬픔은 삶의 색깔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몇 구절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의미와 해석이 강조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례식 애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신학적 관점을 삽입하는 신학적 운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4장에서 우리는 의미와 해석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 슬픔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점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본 것처럼 단지 인간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상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재난에 대한 예언적 신탁의 메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인적 개입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2장에서 부정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개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소돔에 대한 언급과 함께 6절에서 암묵적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든 독자도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받는 징계가 소돔이 받는 형벌보다 더 크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럽고 느린 동작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2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그의 진노를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그는 뜨거운 분노를 쏟아냈다. 그분은 시온에 불을 지르셨고 그 기초를 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 한 구절만 제시되고 그것이 애가의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2장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니요, 4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노와 진노, 그리고 이 불이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학적 적합성이 있는데, 음식이 없고 그들은 죽은 아이들을 음식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글쎄, 적어도 어딘가에 음식이 있었고 불에는 시온의 기초를 태워 버릴 자체 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음식에 대한 새로운 언급은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불의와 이 보응을 위함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런 신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특정 그룹에 대해 이 특정 지점에서 나타나는 죄책감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홀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NIV의 마지막 문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지켜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해석이 매우 많이 부과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슬픔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에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했는데 21절부터 22절까지, 아, 그거 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편 애가에서와 같이 믿음에 대한 강한 확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장례 애도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시편의 기도 애가에 속하는 요소, 즉 믿음에 대한 강한 확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정적인 역전 뒤에는 이 믿음의 확언에서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역전이 약속됩니다. 우리 땅에 사는 딸 에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당신에게는 컵이 지나갈 것입니다. 너는 취해 벌거벗겨질 것이다.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끝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더 이상 유배 생활에 가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딸 에돔아, 그분께서 네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평론가는 이것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희망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3장의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그것은 희망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것이 5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에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는 때때로 에돔을 유다의 제1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프게 회상하고 있는 시편 137편에서, 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에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떻게 말하였는지 기억하시옵소서,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소서, 기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대해 불평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비난은 에돔 사람들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오바댜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에돔, 에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여파에서 에돔이 한 역할에 대한 장황한 장광설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동맹자가 될 예정이었으나 유다와 힘을 합쳤습니다. 글쎄, 당신은 그들이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적에 맞서 버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네 형제의 불행한 날에 그를 두고 기뻐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끔찍한 일은 난민들이 동쪽으로 도망갈 때 에돔 사람들이 그들의 국경에 서서 그 난민들을 포로로 잡고 추격하는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따라잡아 넘겨줄 때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오바द्या는 이 구절과 관련된 공백을 매우 많이 메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웃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지막에 웃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웃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잔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오바द्या는 다시 15장과 16장에서 에돔이 그 진노의 잔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진노의 잔이 길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복음서의 한 부분에서 이 내용이 언급됩니다. 세 복음서 모두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리어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마시지 마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것.

그래서 그 잔은 신약성서, 즉 예수님의 경험 속에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우리는 시온의 미래와 에돔의 미래 사이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신호등 신학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신호등에 멈춰야 할 때 나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나는 교차로의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나에게는 그것이 녹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빨갳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 몇 초만 지나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에돔에 대한 붉은 빛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끝에서 재확인됩니다. 딸 에돔아, 네 죄악을 벌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며 네 죄를 드러내시리라. 그러나 그것은 시온의 청신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녹색 표시등이 표시됩니다.

에돔에게는 나쁜 소식이 곧 시온에는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리하여 네 죄악에 대한 형벌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더 이상 유배 생활에 가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NIV에 따르면 그는 당신의 추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대부분의 단조롭고 암울한 이후에 우리는 긍정적인 진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5장에서 읽을 내용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멘토가 촉구한 대로 회중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는 마지막이자 성공적인 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가서에 대한 강의를 하는 Dr. Leslie Allen입니다. 11회 애가 4장 1-22절입니다.